

〈특집 2: 근현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중국 석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택경 \*

### 〈목차〉

- I. 머리말
- II. 民國시대~1970년대의 연구
- III. 1980~1990년대의 연구
- IV. 2000~2010년대의 연구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중국의 석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①민국시대~1970년대, ②1980~1990년대, ③2000~2010년대 이상 세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해보으로써 중국 석유사 연구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는 오랜 기간 자료와 연구의 축적을 통해 이제 막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는 민국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2000~2020년 기간 집중적으로 진척되었다. 2000~2010년대 중국에서 석유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석유사 연구의 환경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석유의 확보가 경제는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 2000~2020년 기간 중국이 '세계 속의 중국'과 '국제화'를 추구하는

\* 동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환시킨 점 역시 석유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사료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1차 자료의 발굴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출판된 자료집에서 석유사 관련 자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종 정부기관물이나 年鑒, 地方誌, 신문, 잡지, 연구저서 등의 자료도 시급히 정리를 요한다. 넷째, 영미 국가의 외교 아카이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업했던 메이저 석유회사 자료의 소재 파악과 정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 주제어

중국, 에너지, 석유, 석유사, 연구 현황, 연구 전망

---

## I. 머리말

20세기 이래 한·중·일 동아시아국가의 역사연구는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한 여럿 있다. 이 중의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었고 사회에 거대한 변혁을 초래했던 에너지, 특히 석유에 관해 합당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맥락과 위상은 다르겠으나 서양근대사에서 산업혁명 부분을 살펴보면 으레 석탄과 석유, 전기 그리고 기술혁신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오늘날 한·중·일 삼국이 모두 세계 10대 석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에 속하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sup>1)</sup> 아직까지 석유는 근현대 동아시아국가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 유력한 소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에서 국가사가 점차 상대화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점차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진지하게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中國 上海의 復旦大學 中華文明國際研究中心은 〈세계 에너지 역사 속에서의 중국(世界能源史之中的中國)〉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周蔭貴는 중국의 에너지사(Energy History) 연구가 수량과 깊이, 방법 등 모든 방면에서 위상에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정한 몇 개의 의제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국의 에너지사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학술대회의 연구 성과물은 2020년 학술대회명과 동일한 제목의 논문집 출판으로 이어졌다. 논문집은 자유주제, 전력, 석유, 석탄 이상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편의 에너지 관련 논문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유를 위시한 중국의 에너지에 관한 역사 연구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다.<sup>2)</sup>

주지하다시피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에서는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시추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석유를 탐사, 채굴, 정제, 운반하는 기술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의 시추는 스탠다드 석유회사(Standard Oil Company, 美孚石油公司)와 같은 서구의 석유회사가 도맡았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에서 석유 채굴에 결국 실패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59년 黑龍江省 大慶 油田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의 개발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1) 임상범, 『한중일 에너지 삼국지』, 좋은땅, 2015, 5쪽.

2) 周蔭貴·楊大慶 編, 『世界能源史中的中國: 誕生, 演變, 利用及其影響』,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0.

원유의 수입을 전적으로 서구의 석유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서구의 석유회사들이 중국의 석유시장을 사실상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sup>3)</sup>

따라서 근대 중국의 석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석유회사 특히 앞서 언급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포함하여 아시아 석유회사(Asiatic Petroleum Company, 亞細亞火油公司), 텍스코 석유회사(Texco Petroleum Company, 德士古石油公司)와 같은 3대 석유회사의 경영과 활동,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후원과 결탁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sup>4)</sup> 또 서구의 석유회사들에 의해 자국의 석유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타개하여 최종적으로 석유자원의 자주를 달성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의 대응 역시 근대 중국 석유 역사의 전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서구의 석유회사에 종사했던 이른바 매판 중국인들, 석유시장과 석유제품, 환경오염 등의 의제에 대한 정치단체와 언론, 지식인, 대중들의 반응 역시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고는 상술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근대 중국의 석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국 석유사 연구의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근대 중국 석유사 관련 연구

3) 吳翎君,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7.

4) 권오수는 20세기 국제 석유시장을 장악했던 7개의 메이저 석유회사를 '세븐 시스터즈'로 비유했던 사례를 빌려 스탠다드 바쿰 석유회사(Standard Vacuum Oil Company, Stanvac), 로열 더치 쉘 석유회사(Royal Dutch Shell Petroleum Company, Shell), 캘리포니아-텍사스 석유회사(California-Texas Oil Company, Caltex) 이상 3개 메이저 석유회사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로 명명하였다.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 석유 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 연구』 47, 2018;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쪽.

는 민국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시기에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2000년대 이래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현황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약간의 전망을 통해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가 이후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본고가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II. 民國시대~1970년대의 연구

20세기 중국에서 석유는 전체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비중이 큰 에너지는 아니었지만 공업화를 이룩하는 데에 필수적인 핵심자원으로 일찍부터 인식되었다. 또 영국과 미국, 러시아를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석유의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석유 수급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석유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안도 민국시대에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sup>5)</sup>

민국시기에 이루어진 석유 관련 연구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程天頭는 『石油蠡酌』에서 석유가 국가의 경제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국의 석유산업을 발전시켜 해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5) 민국시기 석유에 관한 연구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민국시기 석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연구목록은 張叔岩 編著, 『20世紀上半葉的中國石油工業』,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2001, 332-334쪽 등을 참조. 여기에서는 몇몇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주장하였다.<sup>6)</sup>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陳漢平과 林史光是 메이저 석유회사와 제국주의 국가의 석유정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원유수급구조와 메이저 석유회사 간 경쟁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sup>7)</sup> 또 민국시기에는 서구의 석유 관련 저서에 대한 번역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Page Apnot의 『帝國主義與石油問題』, F. Fetzer의 『戰時石油政策』을 들 수 있다.<sup>8)</sup>

아울러 민국시기에는 각종 신문과 잡지, 학술지 등의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석유와 관련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되었다. 黃惟志의 「石油戰爭」, 韋鏡權의 「英美俄之石油戰與我國之國計民生」, 樓桐孫, 「英美資本主義的經濟侵略與蘇俄的石油」, 燕春臺, 「美孚煤油公司小史」 등의 글이 그러한 실례이다.<sup>9)</sup>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 중국에서 석유사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 기간 중국에서는 1959년 세계 10대 유전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大慶 유전이 발견되었으므로 석유사 연구가 적어도 이전보다는 활발해졌으리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대경 유전의 발견과 개발에 관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대경 유전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시기 석유에 대한 역사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

6) 程天頭 編述, 『石油蠡酌』, 中山: 工商煉油公司印行, 1930.

7) 陳漢平, 『世界的石油戰爭』, 北京: 商務印書館, 1931; 林史光, 『世界煤油競爭與中國』, 香港: 史端著作學社, 1933.

8) 阿納托(Page Apnot), 溫湘平 譯, 『帝國主義與石油問題』, 上海: 上海啓智書局, 1929; 費哲(F. Fetzer), 陳允文 譯, 『戰時石油政策』, 商務印書館, 1937.

9) 黃惟志, 「石油戰爭」, 『東方雜誌』 第23卷 第9號, 1926; 韋鏡權, 「英美俄之石油戰與我國之國計民生」, 『東方雜誌』 第31卷 第14號, 1934; 樓桐孫, 「英美資本主義的經濟侵略與蘇俄的石油」, 『東方雜誌』 第26卷 第3號, 1929; 燕春臺, 「美孚煤油公司小史」, 『清華大學學報』(自然科學版), 1917-2.

테면 陳眞 등이 편집한 『帝國主義對中國工礦事業的侵略和壟斷·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2輯에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분량 자체가 적을뿐더러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 제국주의적 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도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10)</sup> 아울러 민국시기 석유회사에 종사한 체험을 기초로 작성된 회고록이 몇 편 출판되었다. 회고록은 본격적인 의미의 사료나 연구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 석유사 연구를 촉발시키는 '발판' 역할을 하였다.<sup>11)</sup>

### Ⅲ. 1980~1990년대의 연구

개혁·개방 이후 1980~90년대에 중국 석유사 연구에는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우선 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석유산업 발전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개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申力生이 主編한 『中國石油工業發展史』第2卷(近代石油工業)은 이러한 흐름의 서막을 열은 저서이다. 이 책은 아편전쟁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중국 석유산업의 장기적인 궤적을 그려내고 있다. 편자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고 장기간 석유산업에 종사

10) 陳眞 等 合編, 「洛克菲勒財團在中國的壟斷事業」, 『帝國主義對中國工礦事業的侵略和壟斷(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2輯, 1958. 이외에도 동시기에 諾埃爾普加濟의 民國초기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관한 연구도 있다. 諾埃爾普加濟, 「美孚在民國初期的發展」, 『商業史評論』第45卷, 1971-4.

11) 尹希堯, 「美孚石油公司對東北市場的壟斷」, 『遼寧文史資料選輯』第3輯,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63; 陳醒吾, 「抗日戰爭勝利后代理美孚火油回憶」, 『廣州文史資料』第16輯, 1965; 胡毓芬, 「廣州亞細亞火油公司憶述」, 『廣州文史資料』第16輯, 1965.

했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이전의 관련 저서와 크게 차별된다. 다만 혁명사관의 잔영이 남아있고, 자료를 별다른 의미 부여 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 또한 명확하다.<sup>12)</sup> 이밖에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시기 중국에서 산출한 석유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玉門 유전의 역사에 관한 저서도 특기할 만하다.<sup>13)</sup>

80년대 석유사 관련 논문은 분명 양적으로 부족했고 질적으로도 혁명사관이 연속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약 30년간 석유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 시기 논문은 해당 분야의 주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郭孝義의 「三十年代鎮揚地區的英美石油公司」, 呂振羽의 「美英帝國主義獨占中國“洋油”市場說明了什麼問題?」, 孫慶泰의 「國民黨政府時期的石油進口初探」, 「1927-1936年帝國主義國家在華傾銷石油史料」, 「1946-1948年石油製品進口」, 「抗戰期間中國石油工業的建立」과 같은 일련의 연구가 있다. 아울러 楊時旺의 「戰後我國石油事業與美國壟斷資本」, 游恒의 「試析美國托拉斯的典型: 美孚石油公司的發展和演變」, 「試析美孚石油公司發展演變的潛在意義」도 이후의 석유사 연구를 견인하는 성과이다.<sup>14)</sup>

- 
- 12) 申力生 主編, 『中國石油工業發展史』第2卷(近代石油工業),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1988. 동시기 당대 중국의 석유산업을 설명한 개론서로는 鄧力群·馬洪·武衡 主編,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焦力人 主編, 『當代中國的石油工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등이 있다.
- 13) 玉門油礦管理局史誌編纂委員會 編, 『玉門油礦史(1939-1949)』,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88.
- 14) 郭孝義, 「三十年代鎮揚地區的英美石油公司」, 『民國檔案』, 1985-2; 呂振羽, 「美英帝國主義獨占中國“洋油”市場說明了什麼問題?」, 『史學集刊』, 1983-4; 孫慶泰, 「國民黨政府時期的石油進口初探」, 『歷史檔案』, 1983-1; 孫慶泰, 「1927-1936年帝國主義國家在華傾銷石油史料」, 『歷史檔案』, 1983-1; 孫慶泰, 「1946-1948年石油製品進口」, 『歷史檔案』, 1983-4; 孫慶泰, 「抗戰期間中國石油工業的



80년대의 연구경향은 90년대로 이어졌다. 『簡明中國石油發展史』는 고대에서 당대에 걸친 중국 석유 역사를 통시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중화인민공화국시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대와 근대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연구서이기보다는 교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王仰之가 편찬한 『中國石油編年史』는 고대에서 1995년까지 석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편년체로 구성한 공구서이다.<sup>16)</sup>

대만과 홍콩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을 예견하는 석유사 관련 연구와 도서가 출간되었다. 90년대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화교 자본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역사연구에도 반영되어 근대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활동을 했는지, 그러한 투자와 활동은 중국의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다. 羅志平의 『清末民初美國在華的企業投資(1818-1937)』은 당시 경제사 연구의 경향을 대변해주는 저서이다.<sup>17)</sup> 또 홍콩에서는 Mobil 석유회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재중 100년을 회고하는 도판 해설 책자가 출간되었다.<sup>18)</sup> 미국의 저명한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예긴(Daniel Yergin)의 *The Prize: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가 이 무렵 중문으로 번역되어 석유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환기되었고, 석유사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

---

建立』, 『歷史檔案』, 1989-4; 楊時旺, 「戰後我國石油事業與美國壟斷資本」, 『華東石油學院學報』, 1985-4; 游恒, 「試析美國托拉斯的典型: 美孚石油公司的發展和演變」, 『史學集刊』, 1989-2; 游恒, 「試析美孚石油公司發展演變的潛在意義」, 『外交學院學報』, 1987-2.

15) 王繼洲·張榮華 主編, 『簡明中國石油發展史』, 東營: 石油大學出版社, 1997.

16) 王仰之 編著, 『中國石油編年史』,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1996.

17) 羅志平, 『清末民初美國在華的企業投資(1818-1937)』, 臺北: 國史館, 1996.

18) 胡愛茵·陳佩珠, 『先鋒與典範: 美孚在中國的一百年』, 香港: 香港美孚石油公司出版社, 1994.

을 얻기 시작하였다.<sup>19)</sup>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90년대에 출판된 석유사 관련 선행연구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다. 하지만 90년대 해외 자본과 회사의 대중 투자와 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갈래로 파생되고 확장되어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에 이르면 외국 석유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연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90년대 근대 중국 석유사 관련 논문으로는 陶文釗의 「1946年〈中美商約〉: 戰後美國對華政策中經濟因素個案研究」와 張力の 「陝甘地區的石油工業, 1903-1949」 등이 있다.<sup>20)</sup> 2000~2010년대 중국 석유사 연구가 진전되는 데에 영감을 제공한 Sherman Cochran의 “Business, Governments, and War in China”도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1931-1949*에 수록되어 증문으로 번역 출판되었다.<sup>21)</sup>

1980~90년대에 중국 각지에서는 근대 중국 석유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다양한 회고록이 출판되었다. 회고록은 자료의 성격상 일차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석유사 자료의 부족 혹은 공백을 보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아울러 저자들 대부분이 다국적 석유회사에 직접 종사한 체험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중요한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sup>22)</sup>

- 
- 19) 丹尼爾 耶金(Daniel Yergin), 鍾菲 譯, 『石油,金錢,權力』, 北京: 新華出版社, 1992.  
 20) 陶文釗, 「1946年〈中美商約〉: 戰後美國對華政策中經濟因素個案研究」, 『近代史研究』, 1993-2; 張力, 「陝甘地區的石油工業, 1903-1949」, 『中國現代化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91.  
 21) 高家龍(Sherman Cochran), 「企業,政府與中國戰爭」, 『巨大的轉變: 美國與東亞(1931-1949)』,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1.  
 22) 苗麗華, 「美孚石油公司」, 『舊上海的外商與買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民建上海市委員會·上海市工商聯, 「帝國主義石油侵華簡述」, 『工商經濟史料叢刊』第4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劉文林, 「英商亞細亞煤油公司」, 『武漢工商經濟史料』第2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馬廣明, 「亞細亞火油代銷店」: 馬

#### IV. 2000~2010년대의 연구

2000년대 중국에서 최대 이슈는 ‘국제화’였다. 2000년대 벽두부터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었고, 2008년 올림픽을 개

同茂, 『廣西文史資料選輯』第33輯, 1992; 閔文, 「英美三大油行在天津」, 『天津的洋行與買辦』, 天津人民出版社, 1987; 范心田, 「我所知道的美孚公司」, 『工商經濟史料叢刊』第4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徐定, 「美孚公司煤油侵華史」, 『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第7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梁伯言, 「亞細亞火油宜昌經銷記」, 『宜昌市文史資料』第11輯, 1990; 吳卓如, 「水火油在雲南」, 『雲南文史資料選輯』第16輯, 1982; 王連芳, 「新疆石油工業述要」, 『西部開發歷史回顧』,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0; 姚壽山, 「傅紹庭先生經營“洋油”發家史」, 『南昌工商史料選輯』第1輯, 1987; 劉煥詩·聶無放, 「英商亞細亞洋油在自貢經銷情況」, 『自貢文史資料選輯』第3輯, 1982; 應祉多·彭遂良, 「重慶亞細亞油公司」, 『文史資料存稿選編·經濟』下,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2; 李軍, 「洋油壟斷寧波半世紀」, 『寧波文史資料』第9輯, 1991; 李定豐, 「我所知道的德士古石油公司」, 『舊上海的外商與買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張毅, 「美孚火油公司廣州分公司親歷記」, 『廣州工商經濟史料』第22輯,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86; 章迪生·范心田, 「美孚洋行的江西經理趙幹卿」, 『文史資料存稿選編·經濟』下,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2; 莊澤民, 「美孚石油公司汕頭(三達)分公司揭陽總代理商概述」, 『揭陽文史』第13輯, 1991; 張學舜, 「亞細亞火油公司在天津」, 『天津文史資料選輯』第2輯,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 鄭炳華, 「廣州美商德士古公司內幕簡述」, 『廣州文史資料』第22輯, 廣東人民出版社, 1981; 鄭朝強, 「亞細亞火油公司在我國的始末」, 『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第7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曹曾祥, 「亞細亞火油公司概況」, 『舊上海的外商與買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周季東·黃子權, 「漢口美孚洋行記略」, 『武漢工商經濟史料』第2輯, 武漢: 武漢文史委印刷, 1984; 陳蛟峰, 「美孚公司的組織系統、業務概況及報銷制度」, 『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陳允燿, 「關於煤油販賣營業稅」, 『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 1965; 陳允燿, 「煤油洋商勾結陳濟棠扼殺土製煤油業」, 『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 1965; 夏校, 「唐家沱亞細亞油庫的盤剝」, 『江北區文史資料選輯』第3輯, 1990; 韓幼甫·楊起田·葉榮珩, 「解放前外國洋油在安慶傾銷情況」, 『安慶文史資料』第7輯 上冊, 1983; 韓清平, 「亞細亞火油公司在桂、粵活動見聞」, 『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 1965 등 참조.

최하면서 국제화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세계 속의 중국'을 구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역사학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중국 역사학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혁명사관'이나 '新民主主義이론'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의 대리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던 國民政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고, 국민정부 연구가 붐을 이루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근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외국의 외교관, 회사, 단체, 개인 등에 대한 관심도 전례 없이 증폭되었다. 이제까지 '반제반봉건'의 봉인에 의해 연구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영역의 주제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국제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는 80~90년대에 축적한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심화되었다. 80~90년대의 흐름을 계승하여 발전론적 시각에서 중국 석유공업의 역사를 서술하는 연구가 계속 나타났다. 梁華·劉金文의 『中國石油通史(1840-1949)』 卷2는 1840~1936년, 1937~1945년, 1946~1949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근대 석유공업 발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열강의 억압과 속박, 대만 및 만주 지역의 석유공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3)</sup> 溫厚文·王竹君 등의 『百年石油(1878-2000)』은 1878~2000년에 걸친 중국 석유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1949년 이전의 서술은 매우 소략하다. 근현대시기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시기 석유공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sup>24)</sup> 張叔岩이 編著한 『20世紀上半葉的中國石油工業』은 청말에서 민국시기까지의 중국 석유공업 자체를 개설한 자료적인 성격이 강한 개론서이다. 저명한 지질학자이자 민국시기 석유공업을 주도했던 翁文灝 등을 포함하여 중국 석유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6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23) 梁華·劉金文, 『中國石油通史(1840-1949)』 卷2, 北京: 中國石化出版社, 2003.

24) 溫厚文·王竹君 等, 『百年石油(1878-2000)』,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2.

점은 특기할 만하다.<sup>25)</sup> 이외에도 고대에서 개혁·개방 시기까지 중국의 광업 정책과 법제를 다룬 『中國礦業法制史』도 일별할 가치가 있다.<sup>26)</sup>

역사에 대한 관념의 차이는겠지만, 상술한 개론 위주의 연구는 대부분 시선을 석유 혹은 석유(화학)공업 그 자체로 한정하고 있기에 ‘역사저서’로 읽기에는 다소 버거운 감이 없지 않다. 저자처럼 석유나 석유공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거나 문제점을 포착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Sherman Cochran은 *Encountering Chinese Networks: Western, Japanese and Chinese Corporations in China, 1880-1937*에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경영전략과 판매방식 변화를 선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석유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 시기인 2010년대 중국 석유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Cochran의 저서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sup>27)</sup> 이밖에 江紅은 석유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sup>28)</sup>

앞서 언급한 Cochran의 영향은 증문 학술지에서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국의 학술지에 게재된 석유사 관련 논문은 대부분 외국 석유회사나 수입원유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테면 沈

25) 張叔岩 編著, 『20世紀上半葉的中國石油工業』,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2001. 이외에도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編輯委員會 編,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 北京·香港: 當代中國出版·香港祖國出版社, 2009 등을 참조.

26) 傅英 主編, 『中國礦業法制史』, 北京: 中國大地出版社, 2001.

27) Sherman Cochran, *Encountering Chinese Networks: Western, Japanese and Chinese Corporations in China, 1880-193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高家龍(Sherman Cochran), 程麟蓀 譯, 『大公司與關係網: 中國境內的西方, 日本和華商大企業(1880~1937)』,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2002. 비슷한 시기인 2001년 대만에서는 吳翎君의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가 출판되었다. 吳翎君,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 新北: 稻鄉出版社, 2001.

28) 江紅, 『爲石油而戰: 美國石油霸權的歷史透視』, 北京: 東方出版社, 2002.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에밀리 로젠버그, 양홍석 옮김, 『미국의 팽창』, 동과서, 2003; 양홍석, 『미국 기업 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등을 참조.

世培의 「近代“三外商”在安徽의石油壟斷經營及其對社會經濟的影響」, 李義芳의 「19世紀後期美國石油工業의興起及影響」, 張小欣의 「華洋之爭與抗戰前的廣州煤油市場」, 鄭萍의 「亞細亞火油公司“殼牌”標誌銅牌」, 陳禮軍의 「戰後美孚石油公司在華經營探析: 以梧州美孚公司爲例」, 陳梅龍·沈月紅의 「試論近代浙江의洋油進口及其影響」 등의 논문은 그 실례이다.<sup>29)</sup> 그리고 이제 영미 석유회사에 대한 관심은 文艷軍, 「英美三大石油公司廣州分公司研究(1870-1937)」처럼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주제로 외화 되기 시작했다.<sup>30)</sup>

이상의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석유사 연구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연구자들은 中國第一歷史檔案館과 中國第二歷史檔案館을 비롯하여 각지 檔案館에 소장된 1차 자료에 대해 이전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中國舊海關史料』와 같은 대형 사료집이 계속 출판되면서 다량의 석유사 관련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31)</sup> 이를 기초로 200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연구경향은 201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분명해질 수 있었다.

2010년대 근대 중국 석유사 관련 연구 중에서 吳翎君의 저서 특히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은 아마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선행연구일 것이다. 그녀는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된 外交檔案과

29) 沈世培, 「近代“三外商”在安徽의石油壟斷經營及其對社會經濟的影響」,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7-3; 李義芳, 「19世紀後期美國石油工業의興起及影響」, 『長江大學學報』, 2009-1; 張小欣, 「華洋之爭與抗戰前的廣州煤油市場」,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3; 鄭萍, 「亞細亞火油公司“殼牌”標誌銅牌」, 『都會遺踪』, 2008; 陳禮軍, 「戰後美孚石油公司在華經營探析: 以梧州美孚公司爲例」, 『社會科學家』, 2009-2; 陳梅龍·沈月紅, 「試論近代浙江의洋油進口及其影響」, 『寧波經濟(三江論壇)』, 2005-9.

30) 文艷軍, 「英美三大石油公司廣州分公司研究(1870-1937)」,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31) 中國舊海關史料編輯委員會 編, 『中國舊海關史料』, 北京: 京華出版社, 2001.

國史館 소장 자료, 그리고 각종 신문, 잡지에 수록된 스탠다드 석유회사 관련 자료를 집적하여 1870~1933년 기간 在中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본국 정부, 중국 정부, 그리고 또 다른 다국적 석유회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업했는지를 규명해내었다.<sup>32)</sup> 앞서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은 대만에서 2001년에 이미 출판되었으나, 대륙에서는 뒤늦게 발굴되어 2017년에 이르러서야 출판되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대한 관심은 다른 메이저 석유회사였던 아시아 석유회사(亞細亞火油公司), 텍스코 석유회사(德士古石油公司)로 확장되었다. 張小欣은 『跨國公司與口岸社會：廣州美孚,德士古石油公司研究(1900~1952)』에서 廣州를 중심으로 20세기 초-중반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텍스코 석유회사의 활동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sup>33)</sup> 이외에도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관련된 영문 연구서가 속속 번역되어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가 촉발되는 데에 기여하였다.<sup>34)</sup>

2010년대에 나온 근대 중국 석유사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경향을 거칠게 분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3대 메이저 석유회

32) 吳翎君,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7. 최근 吳翎君은 중국에서 활동한 다국적기업과 중국의 국제화, 국제관계망과 관련된 일련의 논저를 출간하였다. 吳翎君, 『美國大企業與近代中國的國際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吳翎君, 『美國人未竟的中國夢：企業,技術與關係網』,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社, 2020; Wu Lin-chun, ““One Drop of Oil, One Drop of Blood”: The United States and the Petroleum Problem in Wartime China, 1937-1945”,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9, No. 1, 2012.

33) 張小欣, 『跨國公司與口岸社會：廣州美孚,德士古石油公司研究(1900-1952)』,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11.

34) 瑪麗 布朗 布洛克(Mary Brown Bullock), 韓邦凱·魏柯玲 譯, 『油王：洛克菲勒在中國』, 北京: 商務印書館, 2014; 艾達·塔貝爾(Ida M. Tarbell), 肖華鋒·方芳 等譯, 『美孚石油公司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9. 중화인민공화국시기 석유화학공업의 역사를 다룬 개론서도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黃時進 編, 『新中國石油化學工業發展史(1949-2009)』上·下冊, 上海: 華東理工大學出版社, 2012.

사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sup>35)</sup> 둘째, 다국적 회사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sup>36)</sup> 셋째, 3대 메이저 석유회사의 활동을 특정 지역이나 도시로 제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sup>37)</sup> 넷째, 석유무역의 수량적인 접근을 통해 구조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sup>38)</sup> 다섯째, 기타 외교협상 과정을 분석하거나 석유자원의 약탈을 고발하고 있다.<sup>39)</sup> 그리고 이상의 연구경향은 중국 각 대학에서 나온 대학원 학위논문에서도 뚜렷하게 발견된다.<sup>40)</sup>

- 
- 35) 姜雲, 「論美孚等石油公司在舊中國的經營及影響(1894~1953)」, 『武陵學刊』, 2014-4; 姜雲, 「美孚等石油公司在舊中國的經營活動及其時代特徵」, 『河北學刊』, 2014-4; 陳禮軍, 「1870-1937年外國石油公司開拓中國市場活動探析」, 『中國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2.
- 36) 代娟, 「20世紀初美國在華利益政策淺析: 以美孚石油公司在中國開采石油的談判為例」, 『新西部』(理論版), 2012-4; 陳禮軍, 「論美國跨國大企業對國民政府〈公司法〉修訂的影響」, 『中共貴州省委黨校學報』, 2011-4; 陳禮軍, 「被束縛的經濟自主: 戰後國民政府與國際石油公司交涉論析」, 『近代史研究』, 2019-4.
- 37) 劉翔, 「近代天津的洋行: 一份有關美孚洋行的文獻考釋」,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2-1; 張曉輝, 「近代西方大公司的華南銷售網: 以石油、煙草業為例」, 『廣東社會科學』, 2011-5; 黃定天·段永富, 「美孚石油公司在中國東北經營的歷史考察」,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2.
- 38) 常旭, 「舊海關史料與煤油進口(1863-1904)」, 『中國經濟史研究』, 2015-5; 常旭, 「中國近代煤油埠際運銷與區域消費(1863-1931)」, 『中國經濟史研究』, 2016-6; 常旭, 「中國近代石油進口貿易研究(1863-1931)」, 『中國經濟史研究』, 2011-3; 陳禮軍, 「跨國石油公司與戰後中國石油進口(1945-1949)」,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4.
- 39) 孫松·方一兵, 「民國時期中蘇合辦獨山子油礦談判研究」, 『工程研究』, 2018-1; 孫瑜, 「論近代以來日本對中國東北石油工業的掠奪」, 『學術交流』, 2015-9; 皇甫秋實·賈欽涵, 「顧維鈞與中國西北石油開發」,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7-1.
- 40) 姜澤, 「美孚石油上海公司研究(1894-1953)」, 上海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2018; 文陽林, 「論亞細亞石油公司在近代中國的經銷體系(1897-1941年)」,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王佩璇, 「近代東北地區美孚石油公司研究(1890-1936)」,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李虹, 「美孚石油公司在中國的經營與管理(1931-1945)」,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鄭詩瑤, 「美國對華石油貿



마지막으로 근대 중국 석유사와 관련하여 영미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미국은 석유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유지해온 국가답게 석유의 역사에 관한 연구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매우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된 관심은 산유국과의 관계나 세계적인 차원의 원유 유통체인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과거 70~80년대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중국 석유사 연구에 별반 주목하지 않았다.<sup>41)</sup> 다만 Judd Kinzley의 박사학위논문인 “Staking Claims to China’s Borderland: Oil, Ores and Statebuilding in Xinjiang Province, 1893-1964”은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 석유사 관련 성과로서 특기할 만하다.<sup>42)</sup>

---

易問題研究: 以美孚石油公司爲例(1870-1941),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陳夢梅, 「美孚石油公司與民國時期廣西社會經濟互動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등.

- 41)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Chu-Yuan Cheng, “The United States Petroleum Trade with China, 1876-1949”, In *America’s China Trade in Historical Perspective* edited by Ernest R. May and John K. Fairban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James Thomas Gillam, Jr., “The Standard Oil Company in China(1863-1930)”, 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1986; Michael H. Hunt, “Americans in the China Market: Economic Opportunities and Economic Nationalism, 1890s-1931”, *Business History Review*, 51:3(Autumn 1977); Noel H. Pugach, “Standard Oil and Petroleum Development in Early Republican China”, *Business History Review*, 45:4(Winter 1971); David A. Wilson, “Principles and Profits: Standard Oil Responds to Chinese Nationalism, 1925-1927”, *Pacific Historical Review*, 46:4(November 1977) 등 참조.
- 42) Judd Kinzley, “Staking Claims to China’s Borderland: Oil, Ores and Statebuilding in Xinjiang Province, 1893-1964”,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12.

## 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근대 중국의 석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①민국시대~1970년대, ②1980~1990년대, ③2000~2010년대 이상 세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해봄으로써 중국 석유사 연구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는 오랜 기간 자료와 연구의 축적을 통해 이제 막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2010년대 중국에서 석유사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석유사 연구의 환경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석유의 확보가 경제는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2000~2020년 기간 중국이 '세계 속의 중국'과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길을 걸어갔던 국가적 상황도 석유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아래에서는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 사료 방면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제기하고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첫째, 석유사 연구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1차 자료의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중국 각지의 당안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所藏의 中國石油公司檔案·行政院輸出入管理委員會檔案·中國石油有限公司檔案, 中央研究院 所藏의 外交檔案, 國史館 所藏의 資源委員會檔案, 上海檔案館, 廣東檔案館, 廣西檔案館 所藏 檔案 등이 활용되었다.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석유사 관련 당안의 목록이 정리되고, 이를 토대로 근대 중국 석유사 당안자료집이 출판되기를 희망해 본다.

둘째, 기존에 출판된 자료집에서 석유사 관련 자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지형이 달라진 탓이겠지만, 이미 출판된 자료집에 석유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만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中國近代工業史資料』,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 『中國舊海關史料』 등과 같은 자료집에서 근대 중국의 석유사 서술에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政府公報나 각종 年鑒, 地方誌 등의 자료도 시급히 정리를 요한다. 또 『申報』, 『大公報』, 『盛京時報』 등과 같은 당시 신문이나 『東方雜誌』 등의 잡지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민국시기에 출판된 석유 관련 연구서와 학술논문도 목록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영미 국가의 외교 아카이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입하였던 메이저 석유회사 자료의 소재 파악과 정리도 근대 중국 석유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현재 석유사 연구자가 이용하고 있는 U. S. National Archiv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British Foreign Office Files(the National Archives) 등에서 석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적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겠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석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료작업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근대 중국의 석유사 연구는 기존 국가 중심의 외교사가 그러하듯이 국가관계나 안보, 지정학 등의 주제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서구의 기술과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전 지구적 근대화에 동참했던 다양한 층위의 사람과 집단의 역사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근대 중국의 석유사가 중국인들이 서구적 근대화(modernization)와 근대성(modernity)에 접촉한 이야기이자, 중국인이 근대화와 근대성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그리고 근대화와 근대성이 어떻게 중국인을 변모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 즉 중국이 국

제화되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한다.<sup>43)</sup>

(2021.04.02. 투고 / 2021.04.13. 심사완료 / 2021.04.20. 게재확정)

---

43)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 문명기 역, 『잠 못 이루는 제국: 1750년 이후의 중국과 세계』, 까치, 2014, 25쪽.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Chinese Oil History Research**

Kim, Taek-kyung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search on petroleum history by dividing the prior research on oil in modern China into three periods: ①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1970s, ②1980~1990s, and ③2000~2010s. Overall, it can be assessed that modern Chinese oil history research has just reached the stage of full-fledged research through the accumulation of data and research for a long time. Research o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oil began in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partly carried ou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eriod, but it was intensively studied between 2000 and 2020. The following factors were working in the background of the activation of oil history research in China in the 2000-2010s. First, the environment for research on oil history has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Second, as China continued to grow its economy, securing oil was a proble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y as well as security, which has led to increased social awareness. In addition, the shift in foreign policy to realize "China that affects the world" rather than pursuing of "China in the world" and "globalization" between 2000 and 2020 also contributed to revitalizing the research on oil history.

In order for modern Chinese oil history research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the following complements must be made in the field of historical sources. First, excavation of primary data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tract oil history-related data from already published archives. Thir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organize materials such as various government data, almanacs, local chronicles, newspapers, magazines, and research books. Fourth, the diplomatic archives of British and American countries and the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 of materials for major oil companies opera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also prior issues.

□ Keyword

China, Energy, Oil, Oil history, Current Status of Research, Research Prospect

[참고문헌]

1. 사료

- 苗麗華, 「美孚石油公司」, 『舊上海的外商與買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 民建上海市委員會·上海市工商聯, 「帝國主義石油侵華簡述」, 『工商經濟史料叢刊』第4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 劉文林, 「英商亞細亞煤油公司」, 『武漢工商經濟史料』第2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 馬廣明, 「亞細亞火油代銷店: 馬同茂」, 『廣西文史資料選輯』第33輯, 1992.
- 閔文, 「英美三大油行在天津」, 『天津的洋行與買辦』, 天津人民出版社, 1987.
- 范心田, 「我所知道的美孚公司」, 『工商經濟史料叢刊』第4輯, 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4.
- 徐定, 「美孚公司煤油侵華史」, 『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第7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梁伯言, 「亞細亞火油宜昌經銷記」, 『宜昌市文史資料』第11輯, 1990.
- 吳卓如, 「水火油在雲南」, 『雲南文史資料選輯』第16輯, 1982.
- 王連芳, 「新疆石油工業述要」, 『西部開發歷史回顧』,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0.
- 姚壽山, 「傅紹庭先生經營“洋油”發家史」, 『南昌工商史料選輯』第1輯, 1987.
- 劉煥詩·聶無放, 「英商亞細亞洋油在自貢經銷情況」, 『自貢文史資料選輯』第3輯, 1982.
- 尹希堯, 「美孚石油公司對東北市場的壟斷」, 『遼寧文史資料選輯』第3輯,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63.
- 應社多·彭遂良, 「重慶亞細亞油公司」, 『文史資料存稿選編·經濟』下,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2.

- 李軍,「洋油霸銷寧波半世紀」,『寧波文史資料』第9輯,1991.
- 李定豐,「我所知道的德士古石油公司」,『舊上海的外商與買辦』,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7.
- 張毅,「美孚火油公司廣州分公司親歷記」,『廣州工商經濟史料』第22輯,廣州:廣東人民出版社,1986.
- 章迪生·范心田,「美孚洋行的江西經理趙幹卿」,『文史資料存稿選編·經濟』下,北京:中國文史出版社,2002.
- 莊澤民,「美孚石油公司汕頭(三達)分公司揭陽總代理商概述」,『揭陽文史』第13輯,1991.
- 張學舜,「亞細亞火油公司在天津」,『天津文史資料選輯』第2輯,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5.
- 鄭炳華,「廣州美商德士古公司內幕簡述」,『廣州文史資料』第22輯,廣東人民出版社,1981.
- 鄭朝強,「亞細亞火油公司在我國的始末」,『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第7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 曹曾祥,「亞細亞火油公司概况」,『舊上海的外商與買辦』,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7.
- 周季東·黃子權,「漢口美孚洋行記略」,『武漢工商經濟史料』第2輯,武漢:武漢文史委印刷,1984.
- 中國舊海關史料編輯委員會編,『中國舊海關史料』,北京:京華出版社,2001.
- 陳皎峰,「美孚公司的組織系統,業務概況及報銷制度」,『上海文史資料存稿匯編·工業商業(7)』,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 陳允燿,「關於煤油販賣營業稅」,『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1965.
- 陳允燿,「煤油洋商勾結陳濟棠扼殺土製煤油業」,『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1965.
- 陳醒吾,「抗日戰爭勝利后代理美孚火油回憶」,『廣州文史資料』第16輯,1965.



- 夏校, 「唐家沱亞細亞油庫的盤剝」, 『江北區文史資料選輯』第3輯, 1990.
- 韓幼甫·楊起田·葉榮珩, 「解放前外國洋油在安慶傾銷情況」, 『安慶文史資料』第7輯 上冊, 1983.
- 胡毓芬, 「廣州亞細亞火油公司憶述」, 『廣州文史資料』第16輯, 1965.
- 韓清平, 「亞細亞火油公司在桂, 粵活動見聞」, 『廣州文史資料選輯』第16輯, 1965.

## 2. 저서

- 양홍석, 『미국 기업 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 에밀리 로젠버그, 양홍석 옮김, 『미국의 팽창』, 동과서, 2003.
- 오드 아르네 베스타, 문명기 역, 『잠 못 이루는 제국: 1750년 이후의 중국과 세계』, 까치, 2014.
- 임상범, 『한중일 에너지 삼국지』, 좋은땅, 2015.
- 江紅, 『爲石油而戰: 美國石油霸權的歷史透視』, 北京: 東方出版社, 2002.
- 高家龍(Sherman Cochran), 程麟蓀 譯, 『大公司與關係網: 中國境內的西方, 日本和華商大企業(1880~1937)』,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2002.
- 羅志平, 『清末民初美國在華的企業投資(1818-1937)』, 臺北: 國史館, 1996.
- 丹尼爾 耶金(Daniel Yergin), 鍾菲 譯, 『石油, 金錢, 權力』, 北京: 新華出版社, 1992.
-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編輯委員會 編,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 北京·香港: 當代中國出版·香港祖國出版社, 2009.
- 鄧力群·馬洪·武衡 主編, 『當代中國的石油化學工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 瑪麗 布朗 布洛克(Mary Brown Bullock), 韓邦凱·魏柯玲 譯, 『油王: 洛克菲勒在中國』, 北京: 商務印書館, 2014.
- 傅英 主編, 『中國礦業法制史』, 北京: 中國大地出版社, 2001.

- 費哲(F. Fetzer), 陳允文 譯, 『戰時石油政策』, 商務印書館, 1937.
- 申力生 主編, 『中國石油工業發展史』第2卷(近代石油工業),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1988.
- 阿納托(Page Apnot), 溫湘平 譯, 『帝國主義與石油問題』, 上海: 上海啓智書局, 1929.
- 艾達·塔貝爾(Ida M. Tarbell), 肖華鋒·方芳 等 譯, 『美孚石油公司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9.
- 梁華·劉金文, 『中國石油通史(1840-1949)』卷2, 北京: 中國石化出版社, 2003.
- 吳翎君, 『美國大企業與近代中國的國際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 吳翎君, 『美國人未竟的中國夢: 企業、技術與關係網』, 臺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社, 2020.
- 吳翎君, 『美孚石油公司在中國(1870-1933)』,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7.
- 溫厚文·王竹君 等, 『百年石油(1878-2000)』,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2.
- 玉門油礦管理局史誌編纂委員會 編, 『玉門油礦史(1939-1949)』,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88.
- 王繼洲·張榮華 主編, 『簡明中國石油發展史』, 東營: 石油大學出版社, 1997.
- 王仰之 編著, 『中國石油編年史』,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1996.
- 林史光, 『世界煤油競爭與中國』, 香港: 史端著作學社, 1933.
- 張小欣, 『跨國公司與口岸社會: 廣州美孚、德士古石油公司研究(1900-1952)』,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11.
- 張叔岩 編著, 『20世紀上半葉的中國石油工業』, 北京: 石油工業出版社, 2001.
- 程天頭 編述, 『石油蠶酌』, 中山: 工商煉油公司印行, 1930.
- 周蔭貴·楊大慶 編, 『世界能源史中的中國: 誕生、演變、利用及其影響』,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20.
- 陳真 等 合編, 『洛克菲勒財團在中國的壟斷事業』, 『帝國主義對中國工礦

- 事業의侵略和壟斷(中國近代工業史資料)』第2輯, 1958.
- 陳漢平, 『世界的石油戰爭』, 北京: 商務印書館, 1931.
- 焦力人 主編, 『當代中國的石油工業』,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 胡愛茵·陳佩珠, 『先鋒與典範: 美孚在中國的一百年』, 香港: 香港美孚石油公司出版社, 1994.
- 黃時進 編, 『新中國石油化學工業發展史(1949-2009)』上·下冊, 上海: 華東理工大學出版社, 2012.
- Edward W. Chester, *United States Oil Policy and Diplomacy: A Twentieth Century Overview*, Westport: Greenwood Press, 1983
- Sherman Cochran, *Encountering Chinese Networks: Western, Japanese and Chinese Corporations in China, 1880-193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Irvine H. Anderson Jr., *The Standard-Vacuum Oil Company and United States East Asian Policy, 1933-1941*,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3. 논문

- 권오수, 「1945~1949년 미국의 대한석유정책과 한미석유협정 체결」,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권오수, 「1945-1948년 미군의 대한 석유 정책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미국사연구』 47, 2018.
- 권오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71)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 회사」, 『동국사학』 65, 2018.
- 姜雲, 「論美孚等石油公司在舊中國的經營及影響(1894~1953)」, 『武陵學刊』, 2014-4.
- 姜雲, 「美孚等石油公司在舊中國的經營活動及其時代特徵」, 『河北學

- 刊』, 2014-4.
- 姜雲, 「美孚石油上海公司研究(1894-1953)」, 上海社會科學院 碩士學位論文, 2018.
- 高家龍(Sherman Cochran), 「企業,政府與中國戰爭」, 『巨大的轉變: 美國與東亞(1931-1949)』,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1.
- 郭孝義, 「三十年代鎮揚地區的英美石油公司」, 『民國檔案』, 1985-2.
- 諾埃爾普加濟, 「美孚在民國初期的發展」, 『商業史評論』第45卷, 1971-4.
- 代娟, 「20世紀初美國在華利益政策淺析: 以美孚石油公司在中國開采石油的談判為例」, 『新西部』(理論版), 2012-4.
- 陶文釗, 「1946年〈中美商約〉: 戰後美國對華政策中經濟因素個案研究」, 『近代史研究』, 1993-2.
- 呂振羽, 「英美帝國主義獨占中國“洋油”市場說明了什麼問題?」, 『史學集刊』, 1983-4.
- 樓桐孫, 「英美資本主義的經濟侵略與蘇俄的石油」, 『東方雜誌』第26卷第3號, 1929.
- 劉翔, 「近代天津的洋行: 一份有關美孚洋行的文獻考釋」,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2-1.
- 文陽林, 「論亞細亞石油公司在近代中國的經銷體系(1897-1941年)」,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文艷軍, 「英美三大石油公司廣州分公司研究(1870-1937)」,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常旭, 「舊海關史料與煤油進口(1863-1904)」, 『中國經濟史研究』, 2015-5.
- 常旭, 「中國近代煤油埠際運銷與區域消費(1863-1931)」, 『中國經濟史研究』, 2016-6.
- 常旭, 「中國近代石油進口貿易研究(1863-1931)」, 『中國經濟史研究』, 2011-3.

- 孫慶泰, 「國民黨政府時期的石油進口初探」, 『歷史檔案』, 1983-1.
- 孫慶泰, 「1927-1936年帝國主義國家在華傾銷石油史料」, 『歷史檔案』, 1983-1.
- 孫慶泰, 「1946-1948年石油製品進口」, 『歷史檔案』, 1983-4.
- 孫慶泰, 「抗戰期間中國石油工業的建立」, 『歷史檔案』, 1989-4.
- 孫松方一兵, 「民國時期中蘇合辦獨山子油礦談判研究」, 『工程研究』, 2018-1.
- 孫瑜, 「論近代以來日本對中國東北石油工業的掠奪」, 『學術交流』, 2015-9.
- 沈世培, 「近代“三外商”在安徽的石油壟斷經營及其對社會經濟的影響」,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7-3.
- 楊時旺, 「戰後我國石油事業與美國壟斷資本」, 『華東石油學院學報』(社會科學版), 1985-4.
- 燕春臺, 「美孚煤油公司小史」, 『清華大學學報』(自然科學版), 1917-2.
- 王佩璇, 「近代東北地區美孚石油公司研究(1890-1936)」,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韋鏡權, 「英美俄之石油戰與我國之國計民生」, 『東方雜誌』第31卷 第14號, 1934.
- 游恒, 「試析美國托拉斯的典型: 美孚石油公司的發展和演變」, 『史學集刊』, 1989-2.
- 游恒, 「試析美孚石油公司發展演變的潛在意義」, 『外交學院學報』, 1987-2.
- 李義芳, 「19世紀後期美國石油工業的興起及影響」, 『長江大學學報』, 2009-1.
- 李虹, 「美孚石油公司在中國的經營與管理(1931-1945)」,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張力, 「陝甘地區的石油工業, 1903-1949」, 『中國現代化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91.
- 張小欣, 「華洋之爭與抗戰前的廣州煤油市場」,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3.
- 張曉輝, 「近代西方大公司的華南銷售網: 以石油, 煙草業為例」, 『廣東社

會科學』, 2011-5.

鄭詩瑤, 「美國對華石油貿易問題研究: 以美孚石油公司爲例(1870-1941)」,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鄭萍, 「亞細亞火油公司“殼牌”標誌銅牌」, 『都會遺踪』, 2008.

朱正圻, 『美孚油公司: 美國石油財團在舊中國的吸血站』, 『上海的故事』第4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5.

陳禮軍, 「跨國石油公司與戰後中國石油進口(1945-1949)」, 『廣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4.

陳禮軍, 「論美國跨國大企業對國民政府〈公司法〉修訂的影響」, 『中共貴州省委黨校學報』, 2011-4.

陳禮軍, 「被束縛的經濟自主: 戰後國民政府與國際石油公司交涉論析」, 『近代史研究』, 2019-4.

陳禮軍, 「戰後美孚石油公司在華經營探析: 以梧州美孚公司爲例」, 『社會科學家』, 2009-2.

陳禮軍, 「1870-1937年外國石油公司開拓中國市場活動探析」, 『中國石油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2.

陳梅龍·沈月紅, 「試論近代浙江的洋油進口及其影響」, 『寧波經濟(三江論壇)』, 2005-9.

陳夢梅, 「美孚石油公司與民國時期廣西社會經濟互動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皇甫秋實·賈欽涵, 「顧維鈞與中國西北石油開發」,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7-1.

黃定天·段永富, 「美孚石油公司在中國東北經營的歷史考察」,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2.

黃惟志, 「石油戰爭」, 『東方雜誌』第23卷 第9號, 1926.

Chu-Yuan Cheng, “The United States Petroleum Trade with China,

- 1876-1949”, In *America’s China Trade in Historical Perspective* edited by Ernest R. May and John K. Fairban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James Thomas Gillam, Jr., “The Standard Oil Company in China(1863-1930)”, 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1986.
- Michael H. Hunt, “Americans in the China Market: Economic Opportunities and Economic Nationalism, 1890s-1931”, *Business History Review*, 51:3(Autumn 1977).
- Noel H. Pugach, “Standard Oil and Petroleum Development in Early Republican China”, *Business History Review*, 45:4(Winter 1971).
- David A. Wilson, “Principles and Profits: Standard Oil Responds to Chinese Nationalism, 1925-1927”, *Pacific Historical Review*, 46:4(November 1977).
- Judd Kinzley, “Staking Claims to China’s Borderland: Oil, Ores and Statebuilding in Xinjiang Province, 1893-1964”,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12.
- Wu Lin-chun, ““One Drop of Oil, One Drop of Blood”: The United States and the Petroleum Problem in Wartime China, 1937-1945”,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9, No. 1, 2012.

